ASAN POL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여론연구센터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국가안보 / 주변국 관계 평가 /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

2013년 6월 1일(토) ~ 6월 30일(일)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 연구원

이의철 연구원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발표일 직전 3일,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예) 5월 4일 수치: 5월 1~3일 조사결과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강충구 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 (02) 3701-7337, eclee@asaninst.org

6월 주요 조사결과

- ▶ **한국사회 주요이슈:** 일자리 창출(37.5%) 〉 남북관계 및 안보(16.1%) 〉 경제 민주화(15.7%) 〉 소득재분배(11.3%)
- ▶ **국가안보 부정적 평가 평균:** 1월 3 · 4주 50.2%, 2월 58.4%, 3월 63.1%, 4월 66.3%, 5월 55.8%, 6월 47.7%
- ▶ **국가안보 부정적 상황의 책임:** 우리 정부(42.3%), 북한(33.8%)
- ▶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미국(56.0%) 〉 중국(30.2%) 〉 일본(14.4%) 〉 북한(9.1%)
- ▶ **주변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 평가:** 북한(61.4%) 〉 중국(59.7%) 〉 일본(55.9%) 〉 미국(35.5%)
- ▶ **한국인은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중국과 일본으로는 경제와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
- ▶ **한국인은 최근 한·미, 한·중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평가.**
  한국인의 열 명 중 여덟 명은 일본, 북한과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었음
- ▶ **응답자의 60.1%는 향후에도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
  한 · 미, 한 · 중 관계는 더 나아질 것으로, 남 · 북 관계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
- ▶ **이민 추천 국가:** 호주(25.4%) 〉 미국(17.6%) 〉 캐나다(11.8%) 〉 스웨덴(7.4%) 〉 뉴질랜드(6.4%)
- ▶ **국정운영을 잘한 역대 대통령:** 박정희(49.0%) 〉 김대중(20.3%) 〉 노무현(14.4%)
- ▶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 북한 48.4%, 남북 모두 40.2%
- ▶ **남북당국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4%로 다수, 적극 나서지 않아도 된다 36.0%**
- ▶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대통령(54.5%), 군대(46.3%),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국회(10.6%)**
- ▶ **정치 정보 습득 경로:** 텔레비전 40.5%, 인터넷 포털 30.6%, 신문 15.4% 등

6월 주요 이슈

6월 1일 한 · 미 국방장관 회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논의

6월 3일 임시국회 개회
새누리당,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계획

6월 4일 한 · 중 군사회담, '전략협의체' 구성 합의

6월 6일 정부, 북한 당국 간 회담 제의 수락 및 장관급 회담 제의

6월 7일 미 · 중 정상회담
남북 간 판문점 직통 전화 재개

6월 9일 남북 실무접촉 시작

6월 11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

6월 16일 북한, 미국에 고위급 회담 제의

6월 22일 북한, UN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 회담 조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6월 24일 국정원,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

6월 26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국회 법사위 통과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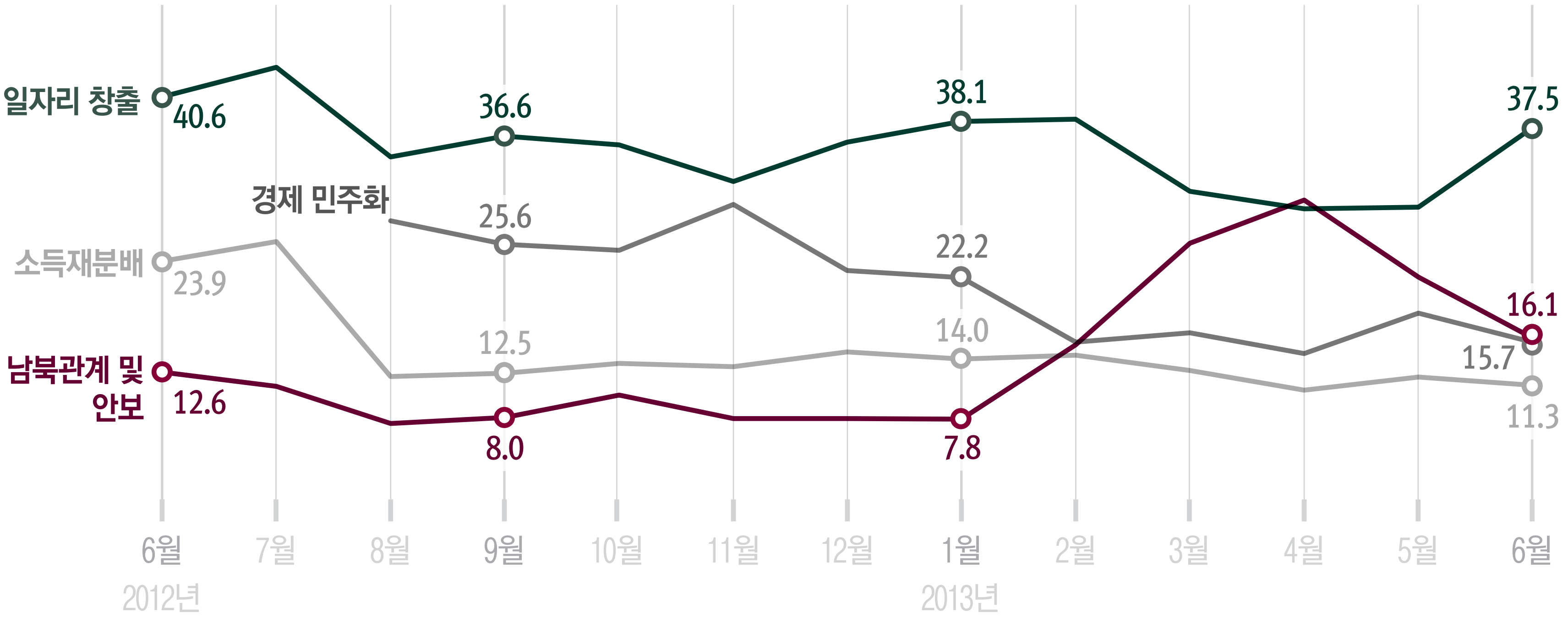
* 국정원 국정조사 / NLL포기발언 논란 계속

Q

조사기간 6월 10~12일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이번 달, 우리 국민의 37.5%는 일자리 창출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았다.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4월, 응답자의 30.1%가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그 비율은 5월 22.3%로, 6월에는 16.1%로 점차 하락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지속된 남북간 긴장이 최근 다소 해소되며 남북관계 및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민생이슈인 일자리 창출이 다시금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18대 대선 캠페인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 약 30%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손꼽았으나, 대선 이후 점차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갑을관계 민주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을 연이어 처리할 것으로 밝혔으나, 우리 국민은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 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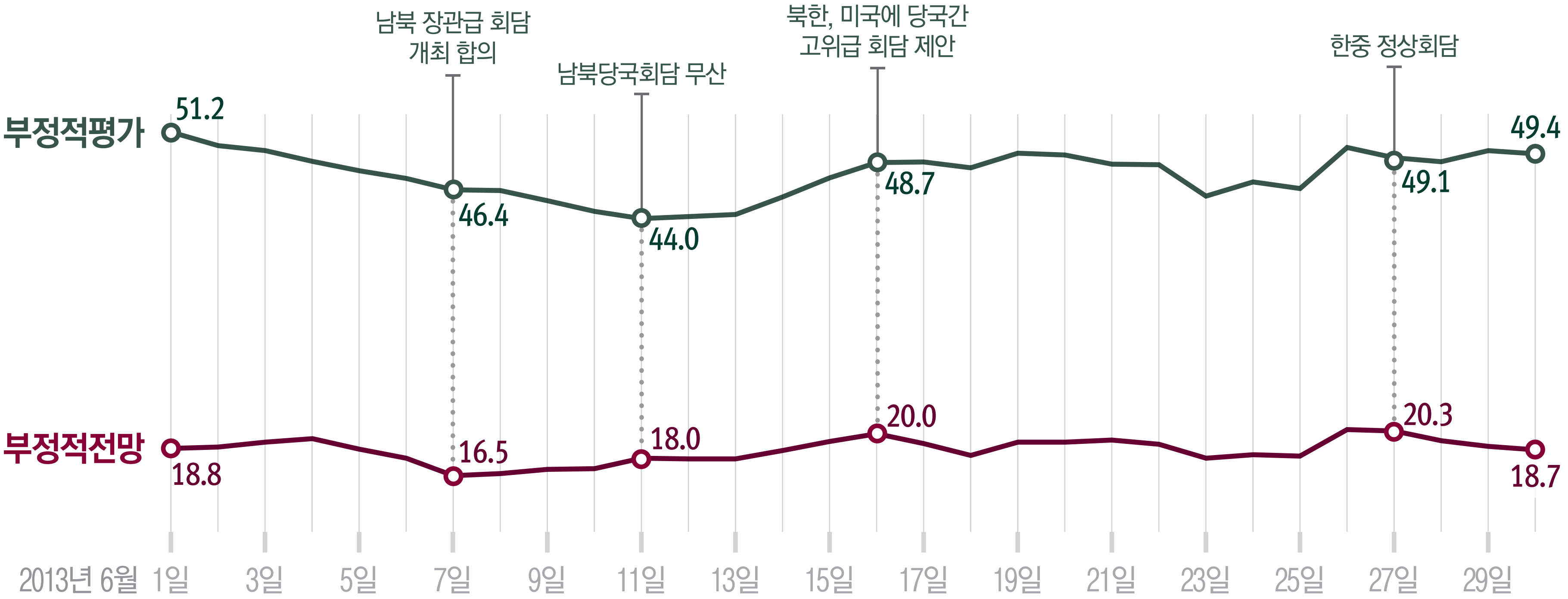
Q

조사기간 6월 1~30일

선생님께서는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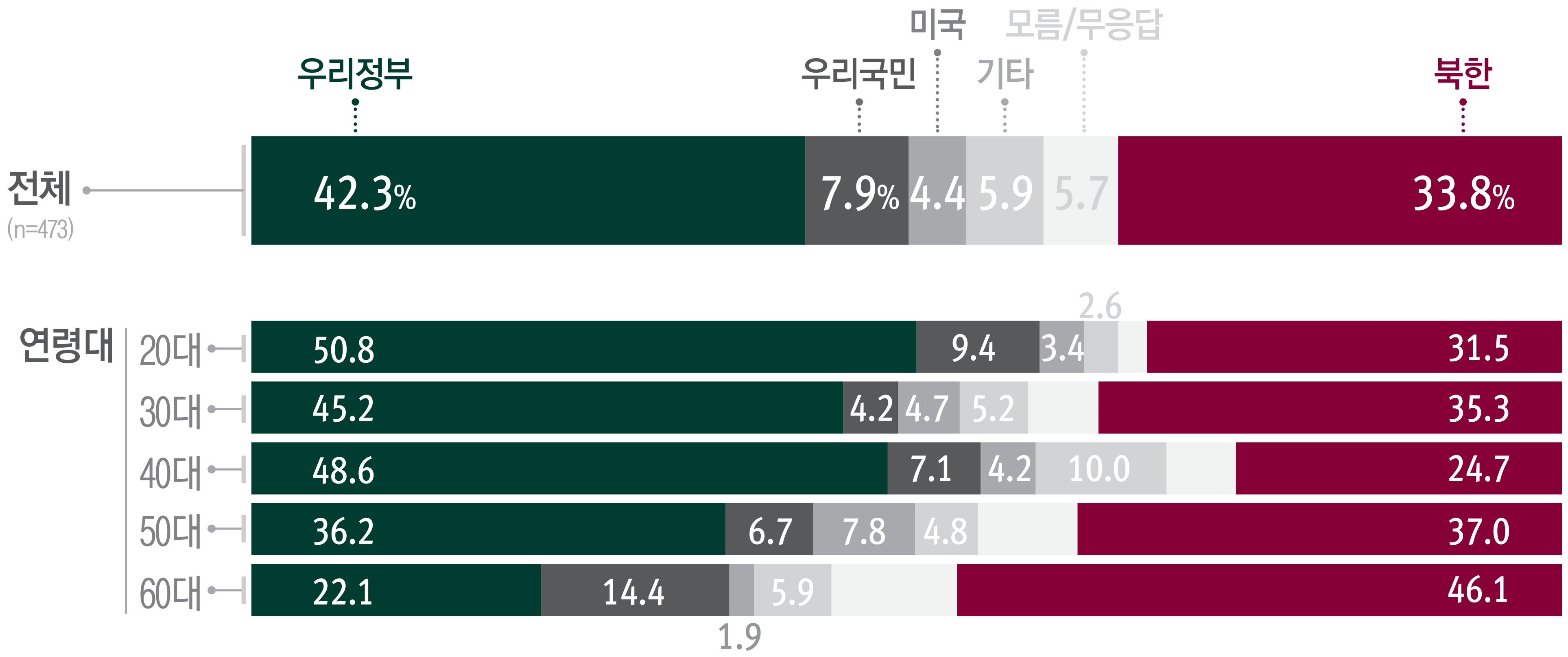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는 6월 들어서도 감소했다. 국가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의 비율은 6월 1일 51.2%였으나, 11일 44.0%로 감소했다가 30일에는 소폭 증가하여 49.4%가 되었다. 올해 초 높게 유지되었던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번 달까지 그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국가안보 부정적 평가 평균: 1월 3·4주 50.2%, 2월 58.4%, 3월 63.1%, 4월 66.3%, 5월 55.8%, 6월 47.7%).

국가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남북 당국회담 협상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전면적인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들의 국가안보 평가가 다소나마 호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 부정적 상황의 책임 소재

Q 조사기간 6월 7~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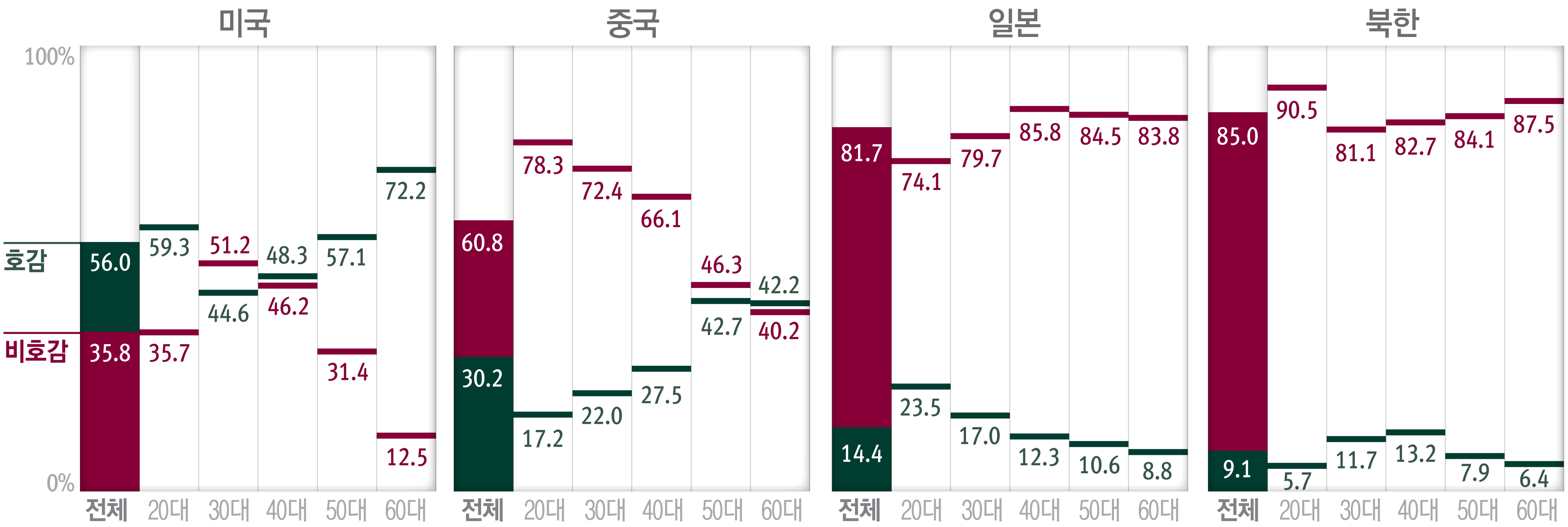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부정적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안보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책임 소재를 물은 결과, 한국인은 국가안보 불안에 있어 우리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었다. 20대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책임이라고 보는 비율의 합이 60.2%로 안보 불안에 있어 우리 나라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세대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46.1%가 안보 불안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14.4%는 우리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연령대와 인식을 달리했다. 40대의 경우 북한의 책임이라고 보는 비율이 24.7%로 가장 낮았다.

조사기간 6월 4~6일

Q 선생님께서는 [미국/중국/일본/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매우 좋아함-좋아함-별로 좋아하지 않음-전혀 좋아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은 미국에 대한 호감이 가장 높았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인의 56.0%는 미국을 매우 좋아하거나, 좋아한다고 답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60대 이상은 72.2%가 미국을 좋아한다고 답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세대였다. 30대는 미국에 대한 비호감이 호감보다 높은 유일한 세대였다. 40대는 호감과 비호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호감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30.2%였다. 중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인으로부터 두 번째로 높은 호감을 받은 국가였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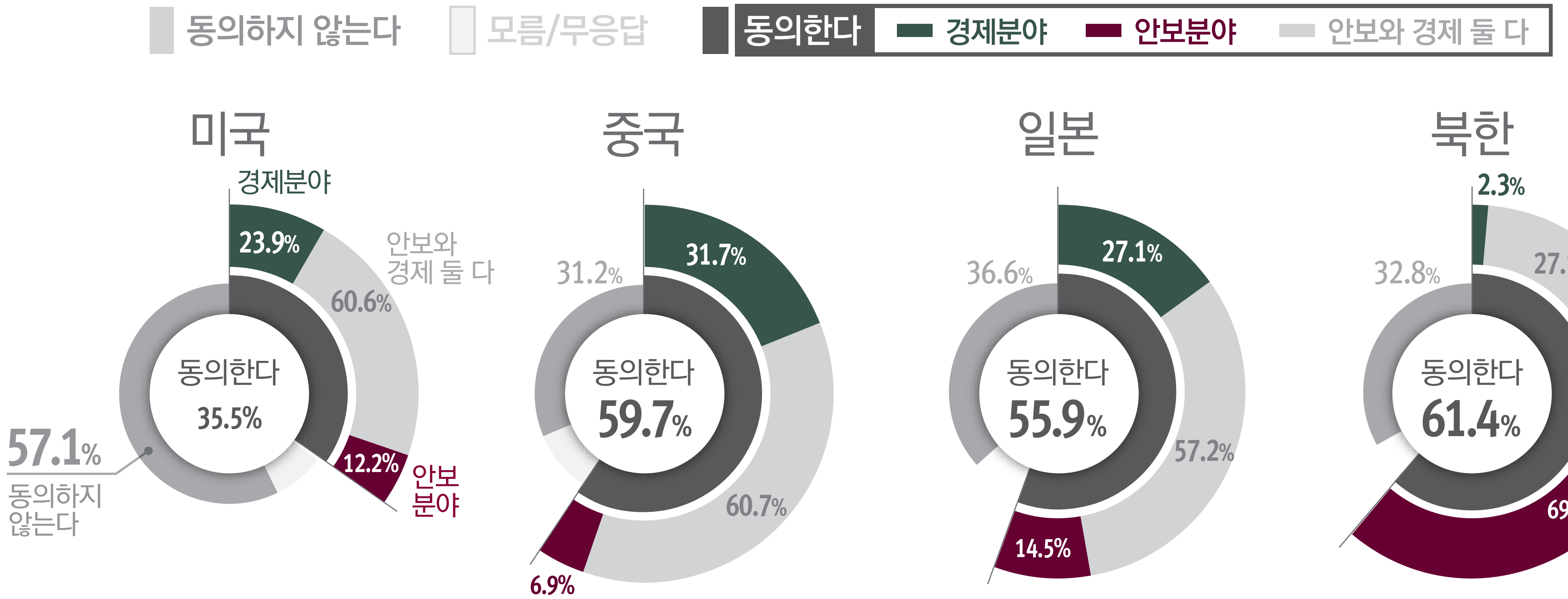
일본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14.4%, 9.1%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20대의 경우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3.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는 연령대 중 유일하게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에 더 많은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주변국의 위협 평가와 위협 분야

Q

조사기간 6월 7~9일

선생님께서는 [미국/중국/일본/북한]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그럼, 선생님께서는 [미국/중국/일본/북한]이 어느 분야에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인은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이 향후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주변의 동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 일본, 북한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두 국가가 우리나라에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고, 북한은 주로 안보에 있어 위협이 될 것으로 여겼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35.5%로 조사에 함께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최근 조사에서 92.0%의 응답자가 한미동맹을 지지[1]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이 경제적 측면과 안보에 있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했다.

1) 아산 데일리 폴 2013.05.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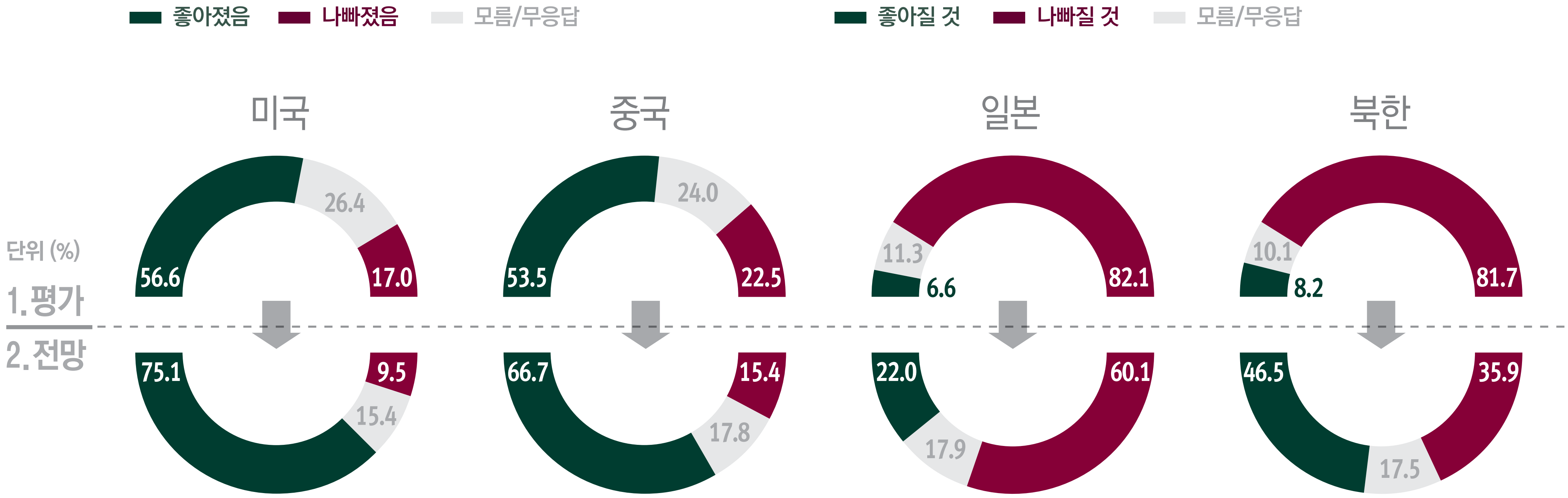
주변국과의 관계 평가 및 전망

Q

조사기간 6월 7~9일

1. 선생님께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북한]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과반이 넘는 한국인은 최근 한미, 한중 관계는 좋아졌으나, 한일, 남북관계는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우리 국민의 56.6%, 53.5%는 미국, 중국과 최근 수년간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본 반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우리나라와 일본, 북한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은 현재 주변국과의 관계 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75.1%의 한국인이 미국과 향후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66.7%의 응답자가, 남북의 경우도 46.5%가 앞으로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었던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비율이 낮았다(22.0%). 최근에도 한일간의 역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양국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향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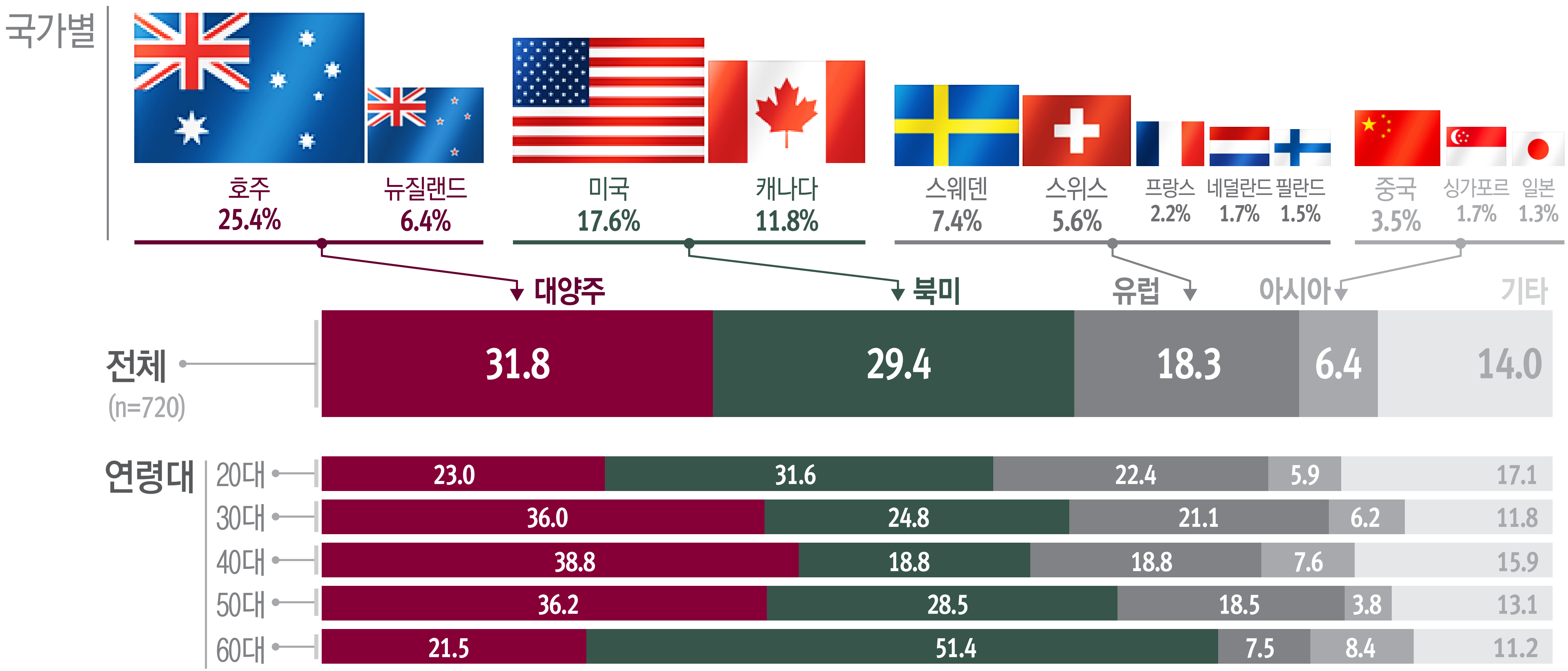
이민 추천 국가

ASAN POLL

Q

조사기간 6월 4~6일

선생님께서는 만약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나라를 떠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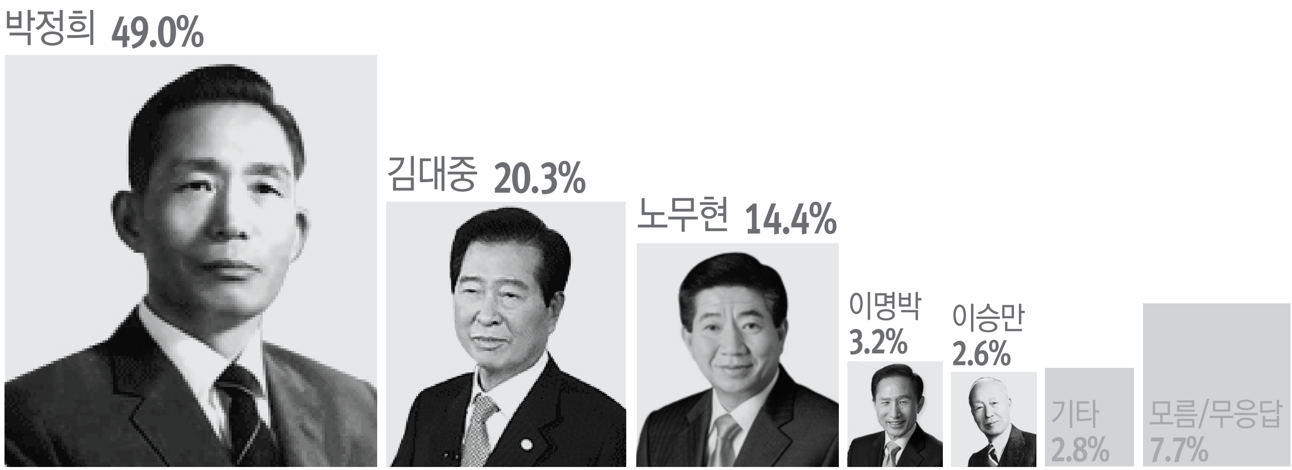
우리 국민은 살기 좋은 국가로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 국가를 첫손에 꼽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는 사람을 위해 어느 나라를 추천하겠냐는 질문에 25.4%의 응답자가 호주를, 17.6%의 응답자가 미국을 꼽았다. 캐나다는 11.8%로 세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은 나라였다. 대륙별로 봤을 때 총 31.8%를 받은 대양주가 1위, 29.4%로 나타난 북미가 2위였다. 다양한 국가가 선택된 유럽은 18.3%였다. 반면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를 떠나 갈만한 나라로 많은 추천을 받지 못했다. 세대별로는 30-50대의 경우, 대양주 국가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2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북미 국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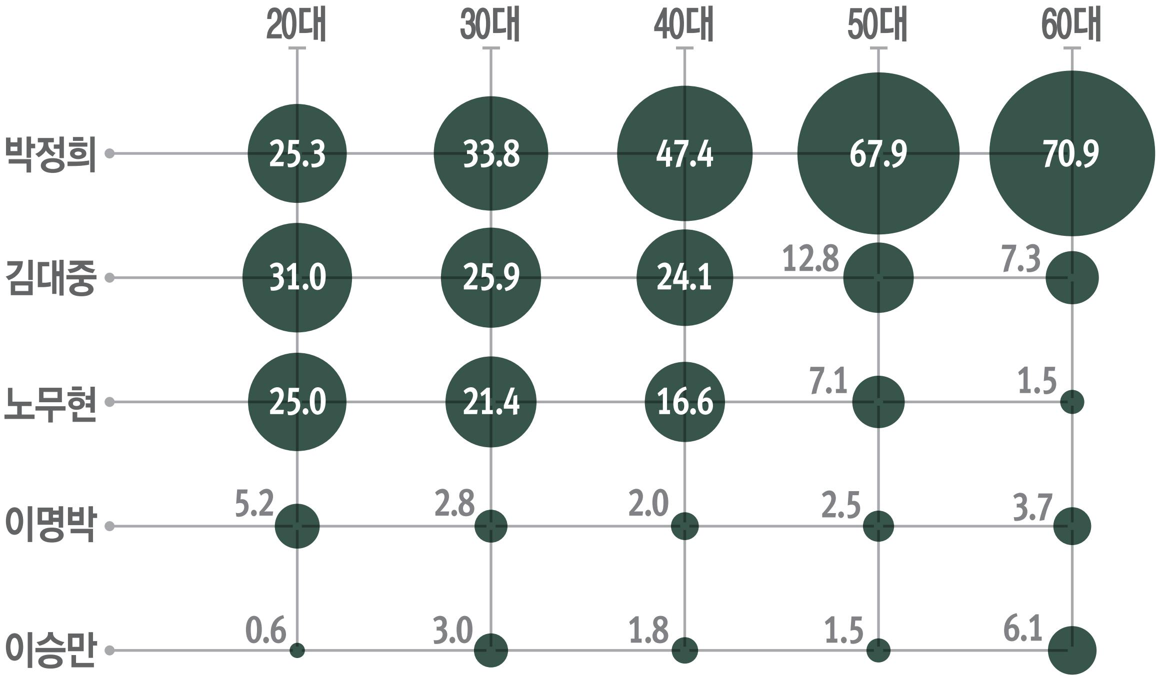
국정운영을 잘한 역대 대통령

Q

조사기간 6월 13~15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누가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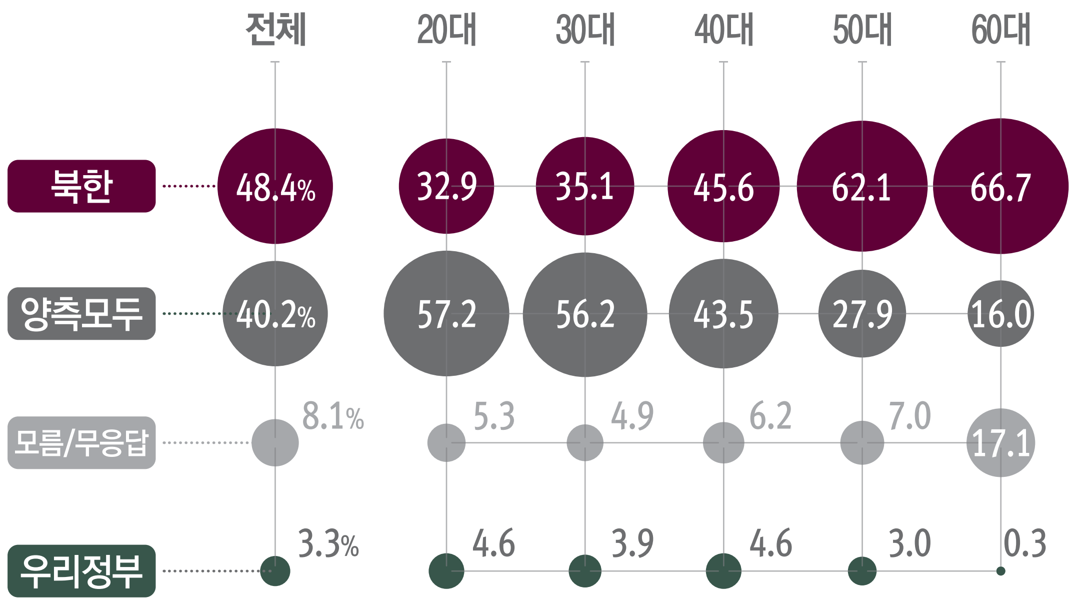


역대 대통령 중 국정운영을 가장 잘한 대통령을 물은 결과, 49.0%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세대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었는데, 노년층으로 갈수록 박 전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이는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세대별 이념격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 상위 3위인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전체의 80%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전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호의적 평가는 일부 대통령에 편중되고 있었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 및 회담 재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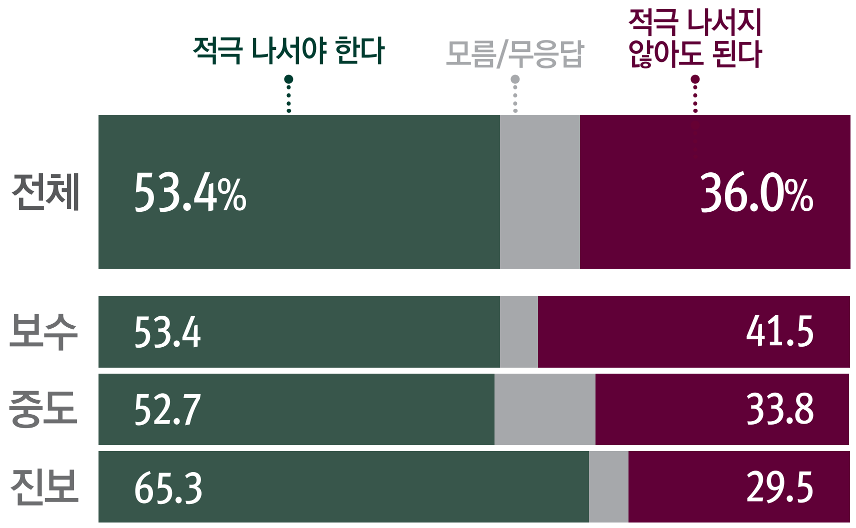
Q 조사기간 6월 16~18일

남북당국회담이 얼마 전 무산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 조사기간 6월 16~18일

선생님께서는 우리정부가 남북당국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를 앞두고 있던 남북당국회담이 회담 하루 전인 6월 11일 돌연 취소됐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결과 48.4%의 국민은 북한의 책임, 40.2%는 남북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50대(62.1%), 60대 이상(66.7%)의 다수가 회담무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본 것과 달리, 20-30대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각각 57.2%, 56.2%로 다수를 차지했다. 40대는 북한의 책임(45.6%)과 양측 모두의 책임(43.5%)이라는 의견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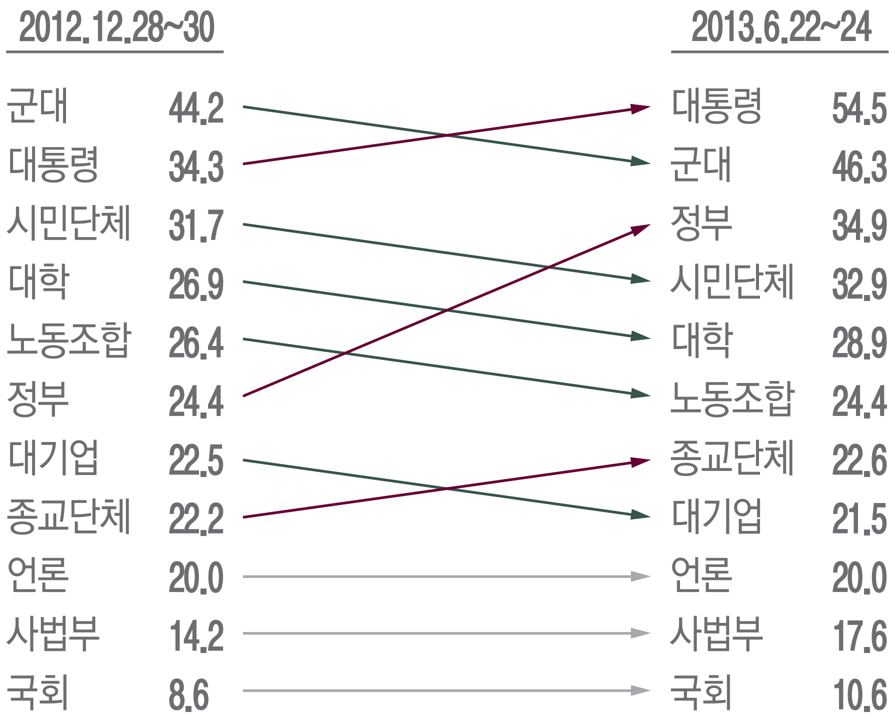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북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3.4%의 국민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적극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은 36.0%였다. 남북당국회담의 재개를 위해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지난 5월 8일에서 10일 사이 진행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아산 데일리 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8%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불필요: 30.6%). 또 같은 조사에서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40.0%)는 의견보다 높았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Q

조사기간 6월 22~24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신뢰한다'를 10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다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단위 :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 6~10점 합계, %)



제도신뢰(미국 Gallup, 2013 6/1~6/3)

I am going to read you a list of institutions in American society. Please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yourself, have in each one? (Great deal + Quite a lot, %)

1	군대	76.0	9	사법제도	28.0
2	소기업	65.0	10	은행	26.0
3	경찰	57.0	11	TV 뉴스	23.0
4	교회 및 종교단체	48.0	12	신문	23.0
5	대통령	36.0	13	대기업	22.0
6	의료제도	35.0	14	노동조합	20.0
7	대법원	34.0	15	HMOs[2)]	19.0
8	공립학교	32.0	16	의회	10.0

2)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각 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11점 척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답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 나타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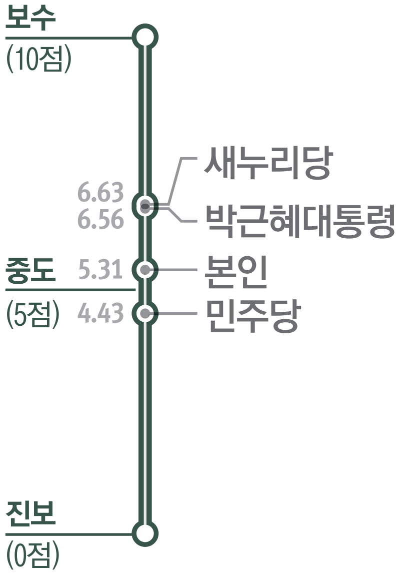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미국과 비교해 보았다. 지난 6월 초 미국 갤럽(4점 척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군대, 소기업, 경찰 등이었고,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의회, 대기업, 언론 등이 꼽혔다. 한국인 역시 군대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낸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은 10%에 머무르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종교단체, 사법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 국민은 미국인에 비해 노동조합을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종교단체나 사법부를 상대적으로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평가 (본인,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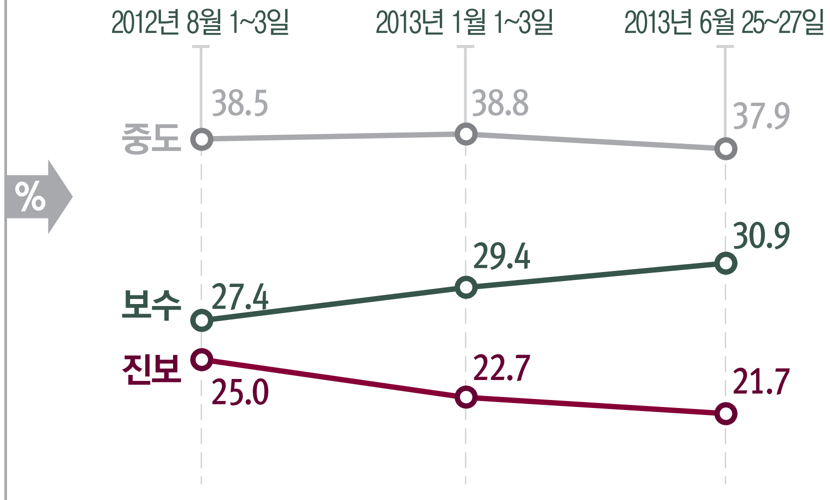
Q 조사기간 6월 25~27일

선생님께서는 가장 진보적이다가 0, 가장 보수적이다를 10으로 했을 때, [선생님 본인/박근혜 대통령]의 이념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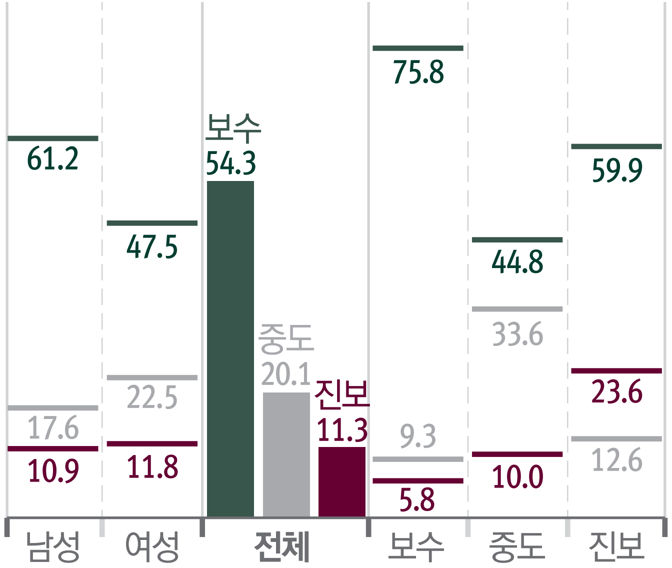
이념평가(평균)



본인 이념 자가 평가



박근혜 대통령 이념성향 평가



한국사회 이념지형을 살펴보기 위해 본인, 대통령, 주요 정당의 이념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에서 약간 보수적(5.31점)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민주당(4.43점)은 진보적으로, 새누리당(6.63점)과 박근혜 대통령(6.56점)은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본인 이념 평가 결과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보수적 이념성향 응답자가 소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아산 데일리 폴(8월)에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27.4%였던 것에 비해, 올해 1월에는 그 비율이 29.4%, 6월에는 30.9%까지 증가했다.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작년 8월 25.0%에서 올해 6월 21.7%로 10개월 사이 3.3%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졌다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54.3%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중도나 진보성향에 비해 보수성향 응답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진보성향 응답자의 23.6%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보적이라고 봤는데, 이는 이념 자가 평가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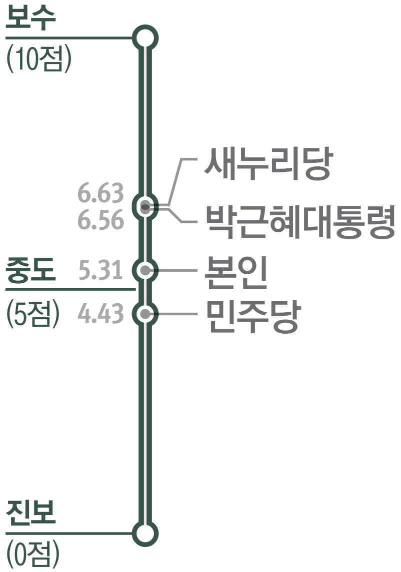
이념평가 (정당)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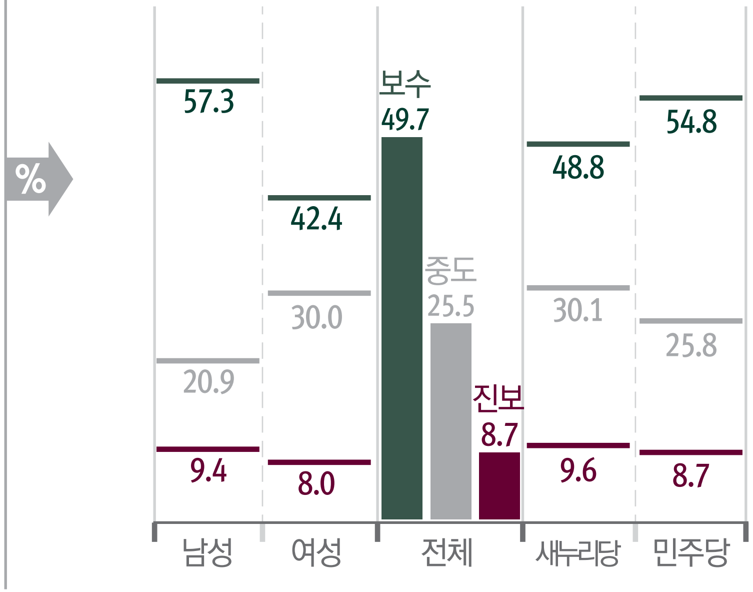
조사기간 6월 25~27일

선생님께서는 가장 진보적이다가 0, 가장 보수적이다를 10으로 했을 때,
[새누리당/민주당]의 이념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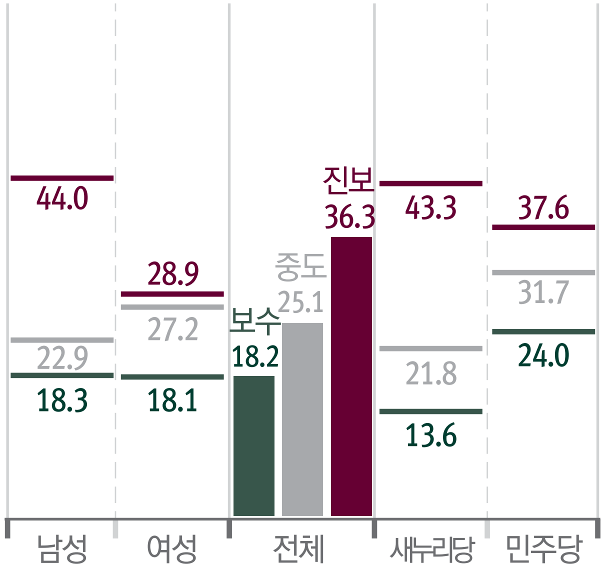
이념평가(평균)



새누리당 이념성향 평가



민주당 이념성향 평가



각 정당의 이념성향 위치를 물어본 결과, 한국인은 새누리당을 보수, 민주당을 진보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9.7%였다(중도 25.5%, 진보 8.7%). 새누리당 지지층의 48.8%, 민주당 지지층의 54.8%가 새누리당을 보수적이라고 봤다.

민주당을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6.3%였고, 보수적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도 18.2%로 적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37.6%가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24.0%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다. 지지층 내에서도 민주당의 이념성향에 대해 의견차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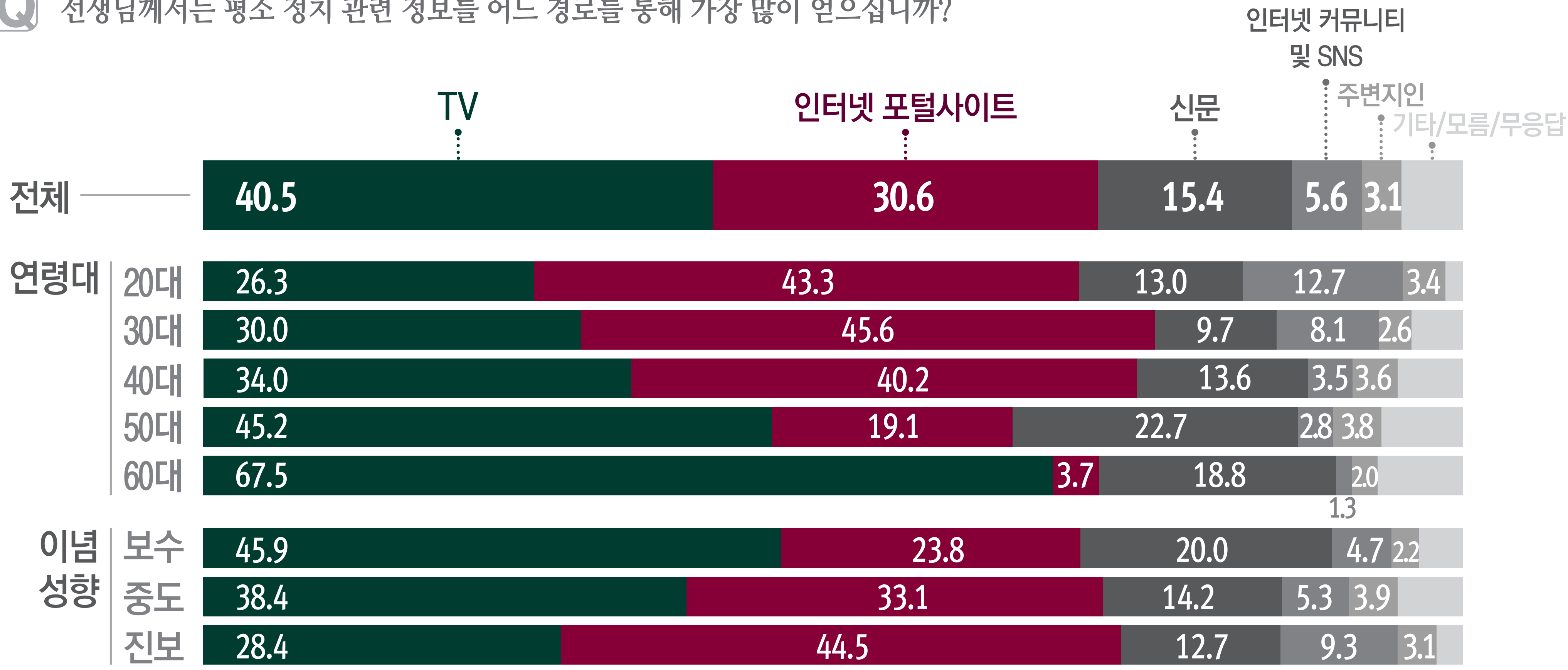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새누리당을 보수정당으로, 민주당을 진보정당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간에 정당의 이념성향에 대한 인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남성의 정치지식과 관심도가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 정보 습득 경로

Q

조사기간 6월 28~30일

선생님께서는 평소 정치 관련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얻으십니까?



우리 국민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주로 정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0.5%가 텔레비전을 통해 정치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치 정보를 획득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두번째로 높은 30.6%였다. 전통 매체인 신문을 통해 정치 정보를 얻는 비율은 15.4%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40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50대~60대 이상은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정치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뉴미디어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을 통해 정치 정보를 얻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12.7%, 8.1%를 기록했다(40대 3.5%, 50대 2.8%, 60대 1.3%).

이념성향에 따른 정치 정보 습득 매체 역시 상이하게 나타났다. 보수적 이념성향을 지닌 응답자일수록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의 전통 매체를 통해 정치 정보를 얻고 있었고,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을 하고 있었다.

아산정책연구원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아산정책연구원 TEL 82-2-730-5842 FAX 82-2-730-5876 www.asaninst.org

COPYRIGHT © THE ASAN ISTITUTE FOR POLICY STUDIES ALL RIGHT RESERVED